추밀공파 양정공 권언(權堰)의 권도(權道)

왕정시대에는 비록 혼군(昏君)이지만 절의(節義)를 지키며 섬길 것인가 아니면 어지러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 선택 앞에서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하곤 했다. 고려 말도 마찬가지다. 포은 정몽주는 절의를 선택한다. 이 절의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5월이면 경기도 용인에서는 포은문화제가 열린다. 또한 포은아트홀에서 창작 오페라 포은 정몽주가 공연되기도 한다.

그는 조선 창업을 반대하다 개성 선죽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했다. 포은은 조선 창업 당시에는 간신(奸臣)으로 낙인 찍혀 개성 주변에 가매장 되었다.(태조1년 12월 16일) 간신 정몽주가 화려하게 충신으로 되살아난 것은 하여가(何如歌)로 정몽주를 회유했던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였다. 양촌 권근은 태종이 즉위하자 "수성(守成)할 때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전대(前代)에 절의를 다한 신하를 상 주어, 후세 인신(人臣)의 절의를 장려해야" 한다고 청하였다.(태종 1년 1월 14일) 태종은 곧 정몽주의 절의를 포상했다. 조선 건국을 반대하고 조선 건국에 아무런 공로도 없는 '최후의 고려인' 정몽주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만고의 충신'으로 거듭난 순간이었다. 이로써 포은 정몽주는 한국정신문화의 상징이 됐다. 창업에서 수성으로 가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대학자 양촌 권근의 문(文)으로써 시대의 균형을 잡고 정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권도였다. 양촌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권천(총제공), 둘째는 권제(문정공), 셋째는 권규(제간공, 부마), 넷째는 권준(안숙공)이다. 이 네 명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증손자들이 훗날 계유정난의 핵심 인물이 된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도모할 때 수양대군과 함께 계유정난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은 권람이다. 권람은 문정공 권제의 아들이다. 또 계유정난에 가담한 권경 역시 권람의 동생이다. 권람의 숙부로서 계유정난에 가담한 사람은 안숙공 권준이다. 이뿐인가 무략이 뛰어나 수양대군의 심복이었던 인물은 권언이었다. 양정공 권언은 총제공 권천의 둘째 아들 권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양촌 권근의 증손자에 해당된다. 그러고 보니 숙부와 조카 그리고 손자 3대에 걸쳐 4명이 계유정난의 핵심인물이었던 셈이다. 권람은 계유정난의 1등 공신으로, 안숙공 권준은 2등 공신으로, 권경과 권언은 3등 공신에 오른다.

안숙공 권준 부조묘(安肅公權蹲不祧廟)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안능마을, 음성군 향토유적

조선왕조실록(세조 5년 4월 30일)에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권준(權蹲)이 졸(卒)하니, 조회(朝會)와 저자를 2일간 정지"했다고 하며, "엄숙하고 굳세어서 재상(宰相)의 체모(體貌)가 있었으며, 문음(門蔭)으로 관직에 보임(補任)되었는데, 일을 만나면 판단(判斷)을 잘 하였다. 일찍이 형조(刑曹)에 재직(在職)하면서 처결(處決)함이 매우 마땅하니 송사(訟事)하는 사람이 통쾌하다고 일컬었다..... 시호(諡號)를 안숙(安肅)이라 하였으니, 관유(寬柔)하고 화평(和平)한 것을 안(安)이라 하고, 마음을 지켜 다잡고 결단(決斷)하는 것을 숙(肅)이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본다면 안숙공 권준은 평소에는 관용적이고 화평한 인품이었지만 사태를 잘 판단하여 명쾌하게 처결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냉철한 판단력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 나가는 권도로 작동한 것으로 사료된다.

양정공 권언에 대해서는 단종실록 13권(단종 3년 1월 24일)에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단종은 "너의 원조(遠祖)가 고려 태조를 도와 삼한을 통일하였고, 증조가 우리 태종공정대왕을 도와 특이한 공훈을 세워 대대로 그 아름다움을 이루었고, 네게 이르러서는 더욱 충정을 두텁게 하였다. 네 공과 네 충성을 만세에 길이 힘입어 참으로 잊지 못한다"고 하교하고 있다. 단종은 안동권씨 시조는 고려 태조를 도와 사태의 기미를 잘 살피고 권도(能炳幾達權)를 발휘하여 고려 건국의 토대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뿐인가 양촌 권근 역시 태종을 도와 특이한 공훈을 세웠고 양정공 권언 역시 계유정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정공 권언의 권도는 무(武)로써 시대의 저울추 역할을 하면서 적어도 시조 태사공의 권도와 양촌 권근의 권도를 잇고 있는 셈이다.

양정공 권언은 진위사로 명나라에 다녀오는 등 다양한 국사를 담당하다 세조 13년에 타계하였다. 세조실록(세조 13년 11월 30일)에는 "복성군(福城君) 권언(權堰)이 졸(卒)하였는데, 무략(武略)이 있었고, 말이 적으면서 웃는 자였다. 무과(武科)에 제1등으로 합격하였고, 이름이 정난공신(靖難功臣)에 올랐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病)으로 졸(卒)하니, 조회(朝會)를 1일 동안 정지하였다. 시호(諡號)를 양정(襄靖)이라 하였는데, 일로 인하여 공(功)이 있는 것을 '양(襄)'이라 하고, 자기를 공경히 하여 말이 적은 것을 '정(靖)'이라 한다."고 양정공의 일생을 정리하고 있다.

역사는 시각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할 수도 있고 그 평가 또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박하게 전개되는 절체절명의 역사적 순간에 사태의 핵심을 찌르는 권도가 어지러운 상황을 타개하고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만은 사실이다. 〈글 권행완〉

■ 權門藝人

조선 제일의 국창(國唱) 권삼득

권삼득(權三得·1771-1841)선생은 영조 47년인 1771년에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에서 안동 권씨 충정공파인 二憂堂 권내언의 세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판소리계에 투신한 양반출신의 (비가비) 광대였다. 아버지 호가 이우당이란 것은 두가지 우환이 있는데 하나가 아들이 판소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판소리 명창 중 최고참으로 흔히 고창의 신재효를 판소리의 중시조 쯤으로 잡고 있는데 그 보다 40여 년 먼저 태어나 활동했다. 또한 판소리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노식의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 소개된 남녀 명창 88명중에서도 첫번째에 올라 있다. 그는 어린 시절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술과 소리에만 빠져들었다. 근래까지도 '딴따리'는 가문의 수치라 그랬는데 당시는 오죽했겠는가? 문중 어른들이 모여 권삼득을 멍석말이 하여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마악 시행하려고 하자, 권삼득이 간청을 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짐승을 웃겨보고 죽고싶다고…

그러자 문중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 권삼득은 외양간에 매여져 있던 황소 앞으로 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를 합니다. 한참 소리가 무르익자, 드디어 황소가 웃기 시작했다.

이에 문중 어른들은 짐승마저 웃기는 권삼득의 재주가 아깝다하여 살려주기로 하여 족보에서만 빼고 쫓겨나는걸로 마무리 했다는 전설이 있으나 족보에 그의 이름은 있다고 한다.

그의 묘지가 있는 완주군 용지면 구억리에는 묘 옆에 '소리구멍'이라 불리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비오는 밤이면 노래소리가 들려 와서 소리꾼들이 지금도 그의 소리를 들으려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도 있다. 그는 판소리 8명창 중 하나로, 12살 때부터 가장 오래된 명창으로 알려진 하한담(河漢潭)·최선달로 부터 판소리를 배웠다고 한다.

그의 소리제는 덜렁제(드렁조)로 전해져 오고, 지금도 판소리 곳곳에서 쓰이며, 높은 소리로 호령하다가 금방 짜부러지는 하강창법으로 호탕하고 씩씩한 느낌이다. 흥보가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이나 춘향가 '군노사령이 춘향 잡으로 가는 대목' 등이 대표적이다. 신재효는 '광대가'에서 이를 "천층절벽에서 떨어지는 만장폭포"에 비유했다. 그래서 그를 가중호걸(歌中豪傑)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 그의 외가인 남원 주천면 지리산 기슭 육모정 뒤에 구룡폭포가 있는데 여기서 폭포득공을 했다는 유적비가 세워져 있다.

명창으로 사람, 새, 짐승의 세가지 소리를 터득(三得)했다는 그를 추모하는 전국국악대제전이 매년 봉동읍에서 열리고 있다.

권삼득 선생의 묘역은 용진면 구억리에 있다. 그 아래 소리굴은 소리의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곳의 이름이 원래 이목정(梨木亭)이었다고 한다.

일명 배나무정 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배나무에 매미가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명당이라고 전해오고 있으며, 이 산 정상에 묘를 안장하면 명창이 태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선생의 조부인 세진(世進)공을 이 산 정상에 모신후로 선생이 태어났다고 한다.

특히 선생의 어머니인 전주 이씨가 유언하기를 "세진공의 묘를 아래로 이장해 또 다시 우리 가문에 명창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유언을 해서 세진공의 묘를 정상 아래로 이장했고 그 후로는 명창의 맥이 끊어졌다는 말이 있다.

□ 권삼득기적비의 내용 (전주 덕진공원)

비석에 새겨진 비문을 통해 우리는 권삼득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국창 권삼득은 양반 출신의 비가비 소리꾼이다. 그가 우리 고장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에서 안동권씨 참언공과 옥천조씨 사이에 1771년 태어나니 이름은 민 자는 사인 삼득은 예명이다. 그는 심산유곡 대자연의 숨결에서 성음과 육률이의 소리가락을 얻어 이를 판소리창에 승격하니 팔명창의 으뜸이었다. 타고난 목성에 음흥적 재질이 뛰어난 소리꾼 권삼득은 양반보다 소리를 따르다. 한비탕의 애원성으로 죽음을 면하고 가문에서 쫓겨나 모진 고난을 겪으며 소리를 닦아 판소리의 체계를 정립하였으며 특유의 덜렁제 창법을 계발하니 천길을 솟아 만길을 내리치듯 흥겹게 출렁이다. 사뿐히 가라앉는 그의 멋진 더늠은 민초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가 1841년 5월 7일 고희로 소리의 일생을 마치고 구억리 선영에 묻힌지 150여상이 지난 오늘 그의 못다 부른 노래 소리가 지금도 무덤의 소리구멍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전설에서 소리꾼 권삼득은 길이 우리들 가슴 안에 살아오고 있음을 안다.

〈글 권진허〉

신간 안내

권용례 시인 첫 시집
〈문자들이 내게로 왔다〉

권용례 시인이 틈틈이 써 온 시를 묶은 첫 시집을 발간했다. 부단한 문학의 열정과 신념의 의지가 뒤늦은 늦깎이의 책을 출간하여 세상의 빛을 보게 한 것이다.

시(詩)가 일상의 생활인 그가 애틋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과거와 현실을 보듬어 섬세함으로 펼쳐낸 작품들은 모든 사물을 마주하며 치열(熾烈)한 열정으로 시를 표현해 낸 삶의 진솔함이 엿보인다.

그에게 시는 삶을 감성으로 어루만지는 작업이며, 평생을 글에 빠져 사는 이유다.

2004년에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 농민문학 회원, 연성문학 회원 문인협회 시흥지부 총무간사를 역임하는 등 문학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다.

시집 [문자들이 내게로 왔다]에는 ▲어머니 곡선 ▲질경이의 꿈 ▲전철에서 ▲지하 주차장 등 126편의 시가 깊은 통찰력으로 사물을 두루 섭렵하여 시집을 떠받치는 생명력을 부여했다. 글쓰기를 운명처럼 여기며, 자아를 확립하여 모두와 소통하는 언어구사를 깊이 파고들기를 희망한다.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 '남자다움'에 대한 강박

權김현영 엮음

'남자다움'에 대한 강박에 쫓기며 여성 혐오로 불안을 달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보편'이자 유일한 '인간'이다. 남성성은 여성성을 비하함으로써 성립된다. 이 책의 한 챕터에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은 '근대 전환기 한국의 남성성'에서 이광수의 소설, 김유정과 이상의 죽음 등을 통해 당시 식민지 남성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만주 벌판의 독립 의열단의 남성성은 빠져있다. 지금도 있는 중국 남방의 여인국의 이야기와 함께 이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결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가부장 상실의 시대에 '권씨종친회'가 들어 볼만한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혁신유림계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선각자

권기훈(權奇勳) 저

한국근현대사 전공, 권박사는 특히 心山에 대한 연구에 탁월하다. '심산 김창숙의 독립운동' '심산 김창숙의 민족운동 연구' '해방후 김창숙의 정치활동' '심산 김창숙 연구' 등이 있다.

心山은 조선 선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준 거의 유일한 존재이다. 유림으로 유일하게 33인이 될 것을 실기한 뒤에 그 유명한 유림의 독립선언인 '파리장서 사건'을 주도했다. 무력 투쟁으로 나석주 사건의 주역으로 일제에 대해 당당하게 투쟁했고, 6.25때 공산 점령시에도 굴하지 않았고, 이승만 독재에도 통렬하게 저항했다. 성균관대 초대 총장으로 사실상 적폐로부터 대학을 살린 분이고, 특히 5.16 뒤에 박정희가 훈장을 주는 등 손을 내밀었으나 그해 5월 서거하였다. 유교계에 그가 없었다면 황량한 벌판에 잡초만 우거진 꼴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개혁적이고 열린 유학자였고 正名한 삶을 살고 갔다. 이 책은 그의 이런 정신을 일목 요연 하고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돋보인다.

행복한 결혼을 찾아주는

하 나 결 혼 정 보

소장 권 경 분

권문(權門)의 자녀 결혼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성심성의껏 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타 A동 1706호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선릉역 ①번 출구)

○ 상담전화 : (02)501-1177
○ FAX : (02)508-5285
○ H·P : 010-3203-3555
○ 자택 : (031)794-0980
○ E-mail : hm1003@hanmail.net

서울산악회 정규산행안내 제279차

◈ 일 시 : 2018년 1월 21일(일요일) 오전 10시
◈ 집합장소 :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
※ 시간 엄수 바랍니다.
◈ 등 산 지 : 이말산
◈ 준 비 물 : 바람막이 옷 등
※ 하산 후 신년회 식사합니다.

▶회장(권정섭) : 010-2799-9455 ▶등반대장(권종우) : 010-5418-4299 ▶사무국장(권병길) : 010-5359-8188
▶부국장(권순용) : 010-4911-9435 ▶여성부국장(권진숙) : 010-8944-2511

2018년 1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섭

서울마포종친회 신년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신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8년 1월 25일(목) 19시
■ 장 소: 우가촌(가마솥설렁탕) 02-702-5047, 010-5358-2840
■ 오시는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5번 출구·지하철 6호선 공덕역6번 출구
→ 공덕오거리 → 르네상스타워(옆) → 우가촌
■ 연 락 처: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18년 1월 1일

안동권씨 서울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